

건축의 외형표출은 내밀적 의미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은 합리주의적 건축을 추구하는 기본논리이다. 즉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성격과 형태 추론성이 외형의 이미지적 논리에 입각한 형태추구가 이뤄지므로 관조자에게 연상적 사고에서 공감성을 갖게하는 경향과 합리적 구조계획과 건축기능이 조화되며 구조체 자체가 외부로 표출되어 외부조형을 구성하는 미적요소로 이용되는 작품의 경향이 많은 건축가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으며 이 사상에 의한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축 사조적인 경향을 한국건축계의 시발적인 위치에 서서 작품활동을 한 건축가가 김정수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소재의 개발에 의한 작품의 표현과 신기술을 가진 작품실현이 뒷받침하여야 하였다. 그러므로 김정수 교수는 신소재와 신기술의 적극적인 연구와 실현으로 한국 건축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말기에는 그의 작품에서 logos적인 경향이 나타남으로써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건축가 - 김정수 (3)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

李好璉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Ho-Chin

합리주의적 표현

건축의 외피는 인간의 외형형성의 이론과 유사하므로 이에 상응해서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외피는 외기의 조건을 내부로 흡수하거나 방어하며 내부의 조건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즉 때로는 외부를 차단하는 굳은 보호막 역할을함과 동시에 내외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얇고 부드러운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필요한 색채 및 아름다운 볼륨과 곡선을 갖고 있는 것이다.

김정수의 작품은 외피의 해석을 이러한 원리에서 구사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장충장로 교회

남산 방송국의 외형에서 창과 벽과 기둥을 구조적인 노출과 내부에서 필요한 유리창과 벽체를 외부로 그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창호의 규칙적인 면 분할을 짙은 칼라로 강렬한 이미지를 주어 벽체나 기둥과의 대조를 이루게 하고 있다. 그러나 면의 분할은 아름다운 비례의 원칙으로 구사함으로써 세련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Pathos적 합리주의 구성이 김정수작품의 특성의 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외피의 조형구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필요해서 세워진 구조적인 기둥의 간격과 높이의 비례를 이용해서 단순미를 살리면서 수직이 강조된 열주로 위엄성과 연속성을 나타냄으로 대학교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의 권위성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를 구사하기에 충분한 표현성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수의 이러한 솔직하고 단순하며 간결한 디자인 기법의 창출은 그의 생활의 형태에 부합되는 경향이라 할 수 있다.

1975년에 완공한 국회의사당 건축은 김정수 생애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하게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사당 설계진을 구성하여 이 팀의 대표자로서 시작부터 마칠때까지 그의 투쟁(?)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자의 자격문제(교수로서 작품진행에서 그 대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중적 문제), 국회의사당 설계진행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대적 상황이 어려운 요소를 너무 많이 창출했고, 국내 최대의 기념비적 건축물로서의 가치기준 정립문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등을 김정수의 건축가로서의 고집과 뜻심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는 성공적이지는 못했다는 본인이 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나 외부 회랑의 강렬한 수직성 강조와 단순성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자존심을 나타내기에 충분하였다고 본다. 외피에 쓴 한국의 돌이 이를 더 부각시켜주는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잘 어우러지지 않은 가운데 높은 돔의 구상은 김정수의 아이디어이기보다는 담당 국회측 분들의 이론에서 기인되었다고 본다. 일본 사람들의 중앙청(구 총독부 건물)의 높은 돔보다는 더 높고 큰 돔을 돔으로써 이를 누르겠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으며, 내부 상징성 돔은 큰 우주 밑의 생활을 나타내려는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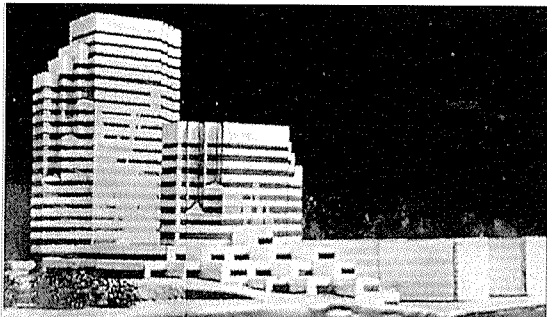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 최대의 국회의사당을 맡아 작품을 완성시킨 김정수의 어려움과 끈기와 노력을 우리는 높이 기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같이 한국 건축의 고전으로서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것이다.

신소재와 신기술을 이용한 작품의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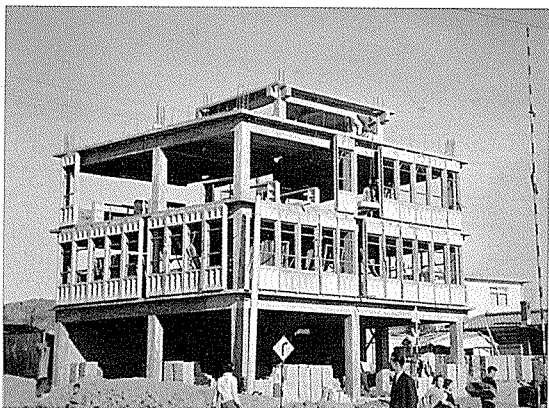
Pathos적 작품 사고의 표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이용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발전된 과학 시대에 부응할 수가 없다.

누구보다도 이러한 측면에서 신기술 연구와 이를 구현하는데 그의 과감성과 진취성이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는 한국의 시대상과 과학과 문화의 후진적 상황이 건축적 실현에서의 구체적 시도에 어려움이 따랐다. 1960년의 장충체육관 설계에서 이러한 상황이 김정수의 신기술 시도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80m 직경의 높은 천장을 덮는데 콘크리트 쉘 구조 돔을 주장하



연대 공대 증축 계획안



동고동 빌딩



명동 성모병원

였으나 이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 여러 상황으로 볼 때 한국의 건축 기술로는 실현하기 어려운 철골 돔으로 바꾸어 설계를 완성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건축기술적 시도는 물론이거니와 의장적 측면에서도 우둔하게 표현되기 쉬운 돔의 형태를 날씬한 곡선으로 나타나게 한 디자인의 세련되게 계획한 구조미의 표현에 그 가치가 더욱 크다 할 수 있다.

장충체육관과 마주 보고 있는 장충동 교회의 형태에서 교회건축의 전통적 이미지와 신 구조기법인 원통형shell로 장 스패를 처리하여 기능과 구조와 미의 합일된 표현을 하나로 나타내는 김정수의 디자인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로마네스크시대의 기독교 건축의 외형의 표본이 된 Round Arch의 외적 표현의 전통성과 이를 이용하여 하늘로 향하려는 수직의 위엄성과 신앙심을 외부로 표출시키는 기법으로 계획하였다. 더욱이 높은 종탑 십자탑은 본체에 비하여 유난히 높게 디자인 하므로 대조성의 원리로 부각시킴으로 더 큰 기독교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다.

Mass와 비례 구성의 세련된 계획이 단순한 구조와 기능과 전통미의 합일된 표현이 교회건축으로의 하나의 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은 장비와 기계적 시스템이 전혀 없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한국 건축계는 그야말로 건축의 원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누구도 새로운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수는 명동에 있는 성모병원의 형태와 디테일에서 이를 극복하여 한국 초유의 알미늄 커튼월을 시도하였다. 커튼월의 창조상세를 설계하고 사시메이커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되느니, 안되느니하며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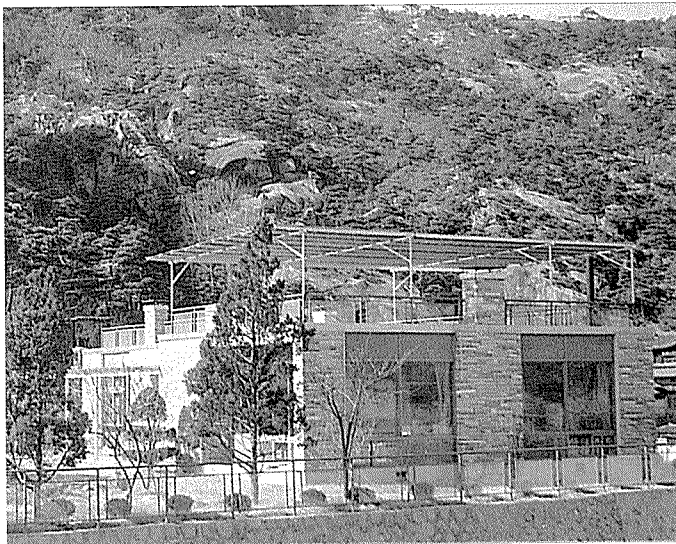
쟁의 어려움을 거쳐 만들어 내고 말았다.

32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 손색없이 우리 건축인들의 교과서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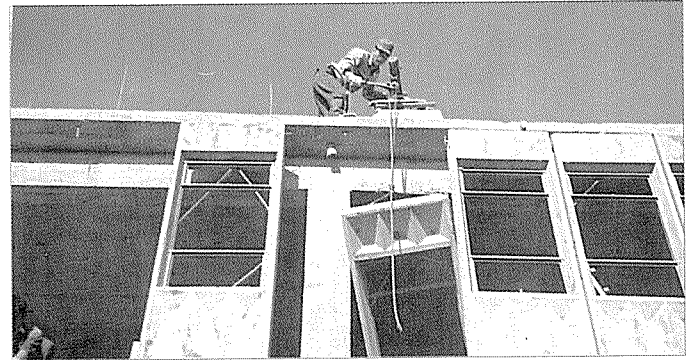
김정수는 학교 강단이나 어느 세미나에서 현대 건축의 의장적 방향을 강조할 때는 항상 대조성(Contrast)를 힘주어 말하곤 하였다. 이것이 그의 디자인 사고의 목표로 하여 모든 작품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작품 철학이 성모병원에서도 강하게 표출되었다. 즉, 명동성당의 교회건축으로의 고전적 전통성을 가진 본당 건물과 그 주위에 가까이 있는 성모병원 건축과의 초현대적 외관 디자인이 환경적 의장의 기본 원리 구축에서 대조성의 원리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혹자들은 조화의 원리로 구축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론이 있었으나 김정수의 이론과 같이 성모병원을 현대적 의장성을 띠므로 고전의 성전이 대조가 강하게 나타나므로 명동성당이 더욱 부각되어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는 현대 건축에서의 건식 공법은 일반화되었고 당연한 시공방법이므로 이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의 한국 건축계에는 PC공법이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김정수의 이러한 시도는 또 하나의 신기술의 획을 크게 긋고야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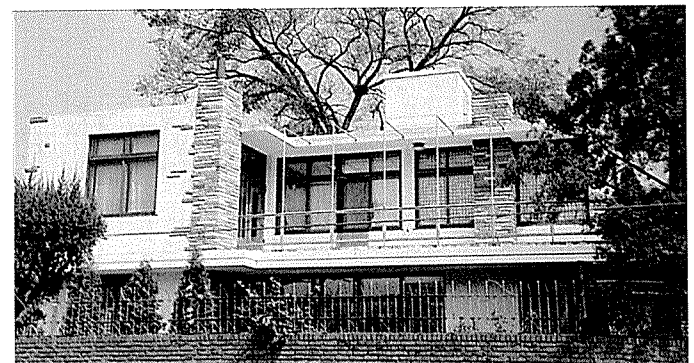
Pre-cast Concrete의 외형 마감방법은 모듈화된 외형의 숫자가 어느 정도의 양이 되어야만 경제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수는 PC의 실험적 확신을 위해 본인의 조그만 집에 이를 시도하였다. 몇개의 조그만 PC의 실험적 확신을 위해 본인의 조그만 집에 이를 시도하였다. 몇개의 조그만 PC를 도르레에 매달아서 부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풍문여고 과학관에서도 pre-cast Concrete를 운동장에서 철판을 구부려서 만들어서 나무



청운동 주택



동교동 빌딩(PC 시공)



종로 주택

로 받힌 도르레를 이용하여 부착시켰다.

이러한 새로운시도는 항상 건축주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이러니와 시공자들과의 이해가 항상 문제로 대두되곤 하였다.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의 PC판 때문에 우리나라의 굴지의 시공회사가 못하겠다고 그 부분은 포기하여 별도 발주의 사태까지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PC판 외에도 종로 YMCA 건축에서 사용한 Mullion의 Pre-cast Concrete 등 건축 각 부분에서도 이용되었다. 이뿐 아니라 기존 슬래트를 이용한 Shell의 구조적 적용으로 지붕 구조의 개발 등의 실험적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PC를 이용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돌의 Texture를 살리고 다양한 색조의 배합과 그 재료의 크기와 형의 다양성을 자유롭게 만들어 건축외관에 의장성을 살리므로 조형적 가치를 얻게 하는 디자인적 측면의 신재료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연석이란 이름으로 각 종류의 건축에 그 디자인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특히 정신여고 교사동 고층동의 측벽 전체를 연석을 이용하여 거친 Texture를 아름답게 면구성을 하고 저층의 연결복도를 Curtain Wall의 매끈한 Texture로 디자인 하므로 수직과 수평의 Direction의 대조와 Texture의 대조가 강하게 부각되는 의장적 표현이 이 건축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방법이 김정수의 디자인 사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구조와 기능과 재료의 미가 의장적 원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표현되는 시도의 대표적인 작품이 정신여고 교사동의 작품이기도 하다.

1950년대부터 1960년에 이르는 한국의 주택형태는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본의 건축주택 잡지에서 나타

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아 왔었다. 그러나 김정수는 그가 개발한 신건축 재료를 이용하고 주거의 기능적 평면과 외부 노출의 요소들을 이용한 합리주의적 외부 표출에 디자인의 방향을 가지고 여러개의 주택을 계획하였다.

감응적 표출

건축의 표현에 또 다른 방법 중에는 감응적 표출의 장르에서 작품 표현의 중점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내적 의미의 표출보다는 건축에 나타난 시각적 표현주의에 두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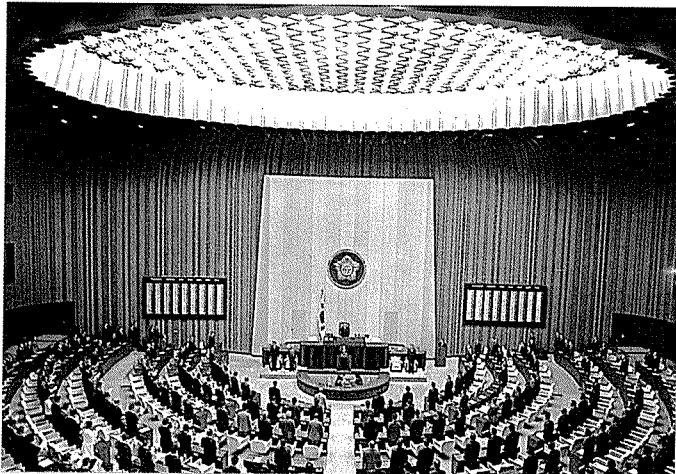
김정수의 건축작품에서 이러한 시도가 초창기 작품 1950년대 초에서 그 경향이 보였고 김정수의 작품활동기 말미인 1980년 초기의 작품에서 이러한 경향을 맞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953년 경의 신신백화점의 공간에서 이러한 느낌을 주게 하고 있다. 이때까지의 건축은 외피로 둘러 싸여진 폐쇄된 공간만이 건축이라고 느끼던 관념을 뛰어 넘어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무한대로 연결시켜 공간성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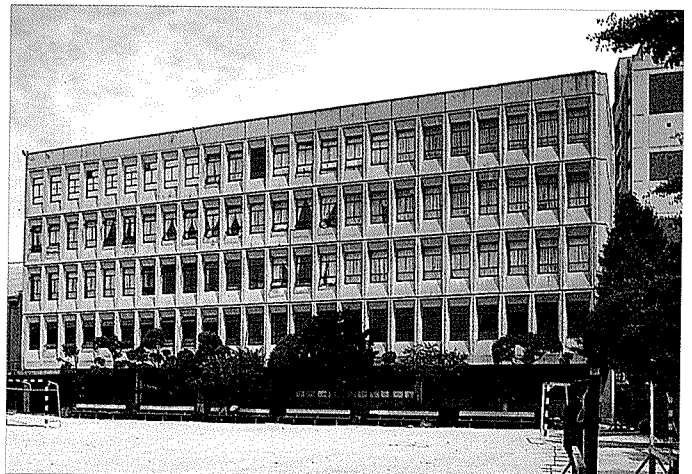
하늘의 자연광선을 받아들이고 물을 도입하여 자연의 감응을 일으키게 하며 그곳에서 내부로 쉽게 진입시키는 전위공간으로의 역할을 아케이드를 두어 그 표현을 최대한 나타내게 하고 있다.

물론 맞은 편에 있는 화신 백화점(박길룡 설계)이 르네상스양식에 의한 고전적 분위기에 비해 모던한 건물이 상호대조성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김정수의 건축의 장적 표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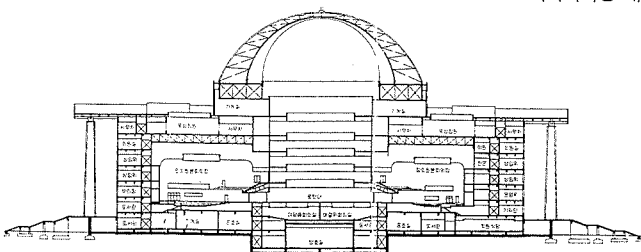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사용하는 사람들에 더 활기찬 쇼핑물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그곳이 서울의 명소로 부각되어 20년



국회의사당 내부



풍문여고 과학관



국회의사당 단면도

간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던 곳이기도 하다.

1984년 대학의 정년 퇴임식을 2개월 여를 앞두고 유명을 달리하시기까지 작품에 그 정열을 기울이었다. 그 말기의 작품으로는(시공은 안됐지만)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증축 계획안에서 그의 마지막 건축의 사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건물도 김정수의 작품성에서 기능성과 구조성이 합일된 합리적 건축으로 나타난 것인데 반해 후면에 증축되어질 건축의 계획은 감응적 표출로의 Logos적 작품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공과대학의 저층의 수평적 요소에 반하여 두개의 수직적 요소가 Gradation을 가지며 Ultra하게 저층과 고층부를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적 방법은 김정수의 작품사상의 또하나의 발전적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좀 더 과감하고 현대적인 작품표현성을 나타냄으로써 원숙된 작품시도라 할 수 있다.

結

지금까지의 3회에 걸친 김정수의 건축에 대한 생애와 작품사상과 작품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김정수가 건축인으로 후세에 미친 영향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여기에는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과 설계사무소의 제자로서 가깝게 모시고 생활해온 한사람으로써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서술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면서 그의 발자취의 남아 있는 부분들을 정리함으로써 본 집필을 마치려 한다.

첫째는 한국 건축 교육계에 건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많은 후인들을 배출하여 그들이 현재의 한국 건축계에서 중요한 위치에서 그들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일은 영원히 살아 그 혼이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둘째는 한국 건축 사조의 맥을 구축해 나가는데 그 시발적 위치에서 작품을 만들었고 영향을 크게 미친 한국 건축의 대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셋째는 후세 건축인들은 그의 건축문화에 임하는 사고의 틀을 그의 생애와 작품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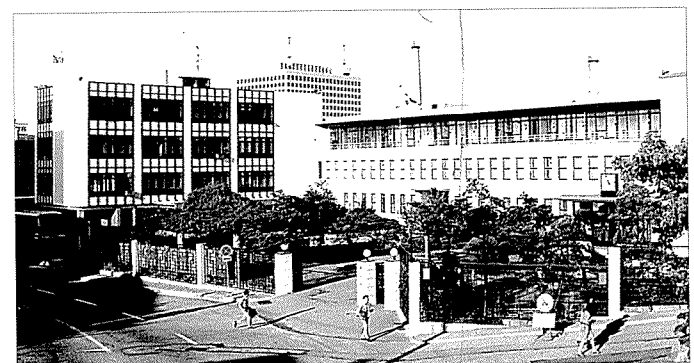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김정수가 한국 건축계에 영원히 미치는 영향들이라고 느낄 때 우리를 가슴속에 김정수가 영원히 살아 남을 것이다.



셀구조 실험 모습



장충체육관



남산 방송국